

이데올로기, 역사, 개인의 삶과 그 진실

李泰의 「南部軍」을 읽고

玄吉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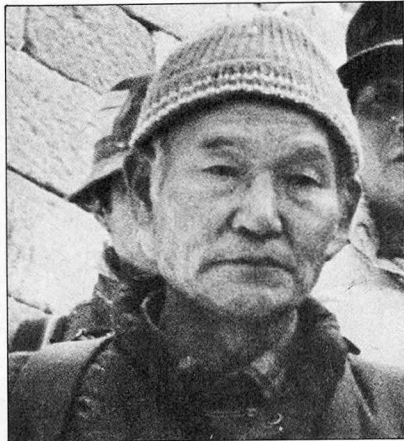
소설가 · 한양대 교수

우리는 흔히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신뢰한 나머지 개인의 진실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간 각 개인의 삶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것은 물론 일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전제하지 않은 역사나 사회는 자칫 허위를 범하여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여 소중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일이 바로 역사나 사회의 진실과 맥을 같이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격동의 한 시대를 살았던 개인과 한 계층 또는 집단의 삶의 진솔한 기록은, 오히려 기술된 역사보다 더한 인간과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는 필연적으로 당대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實記(그것이 물론 개인 의식의 한계 안에서 씌어지긴 하지만) 한 시대나 집단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李泰(가명)의 「南部軍」은 재미있게 읽히면서 그 의미를 새삼 씹어보게 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태의 본명은 이우태로서, 서울 모 대학 졸업후 합동통신 기자로 재직중 6·25가 발발하자 북한 국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로 참여, 간호대를 이끌고 낙동강 전선에서 중군기자로 참전하기도 했다. 그는 전장에서 중앙통신 기자로 활약하던 중 전황이 역전되면서 북으로의 퇴각로를 잃고 입산, 조선노동당 전북도당 산하 유격대 대원으로 소대장까지 하였고, 남한 빨치산의 지도적 인물인 이현상의 직속부대인 남부군에 편입, 1953년 체포될 때까지 지리산 빨치산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역사에서 소외된 주변부 집단의 비극

그는 대부분 다른 빨치산들처럼 자기 선택에 의하여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지도부를 제외한 빨치산 대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빨치산 대원들은(지도부를 제외하고는), 후퇴를 미처 하지 못한 북측 병사들과, 6·25 전쟁 전부터 남로당 지하당원으로서 남한 각 지역에서 활약하다가 전세가 불리하였어도 월북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 선택에 의하여 빨치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빨치산이란 집단이 비극적인 것처럼 이들 운명도 역시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남부군」의 저자 李泰씨.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실체가 최근에 밝혀지면서 무성한 화제를 낳고 있다.

문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만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한국군대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빨치산 집단에 대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빨치산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조직, 작전, 생활, 정치 역학적 관계, 토벌군과의 교전을 통한 한국군의 戰史, 빨치산과 토벌군의 양대 무력 사이에서 살아온 일반 양민의 처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둘째는, 빨치산 부대의 초기 생성단계에서 괴멸에 이르기까지의 활동과 남·북한 전쟁 상황 변화에 따른 이 집단의 정치적 운명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주변부 한 집단의 비극이 어디서 연유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술적 차원에서 남한 빨치산 활동이 이용가치가 있을 때와는 달리, 휴전협정 당시 이들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보여주지 않은 북측의 반도덕성은, 정치의 非情 이전에 소위 이데올로기와 역사의 횡포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작자가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넘어 30년이 지나기까지 이 글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문제를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과 당위성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장 동무는 꼭 살아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어간 우리들의 삶을 기록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 생생하게 내 귓전에 남아 나를 재촉했다. 수용소에서 나는 보다 진실한 내 나뉠의 시각에서 사실을 접근하고자(……) 나 자신의 체현을 자세히 메모하는 한편 산중에서의 기억들을 더듬으며 이 사람 저 사람에

게서 들은 이야기를 화선지 휴지조각에 메모했다.

쓰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남부군의 戰史를 쓰기 위해 그 절박한 빨치산 생활에서도 각종 기록과 자료를 모아두었다(갖고 나오지는 못했지만)는 점으로 봐서, 기록에 대한 그의 치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치열함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이 글에 더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은 결국 역사에 대한 애정에 이르게 할 것이다.

특수상황에서의 인간의 진실과 생존양식

세째는, 빨치산들의 산속 생활은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진실과 생존양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인간탐구를 대신하고 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리고 젊은 빨치산들의 최후, 이념과는 관계없는 사랑에의 정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빨치산 서로간의 비정한 행동들, 죽음의 상황에서 지도부 빨치산들의 태연한 모습, 절박한 상황 속에 일어나는 생존에의 열망과 그것을 위한 논리를 앞서는 행동양식들… 이러한 것들에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숨겨져 있던 인간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동 또한 컸다. 이 점은, 이 책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집단의 생생한 기록이면서도, 그들의 생활이나 행동양식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보다는 오히려

진지하고

치열한

인간들의

아름다운

진실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이 책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그것은, 작가

자신이 그의 삶에

대한 애정이 바로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

는데 한몫 하기를 바라

는 간절한 소망과 일치

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南部軍이라는 한국 격동기 빨치산 부대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미아인 이들 집단의 상황이 역사의 소외자인 南部軍의 문제에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외된 민족의 비극을 대신 드러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은 것은 지나친 편견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公義라는 역사의 비정이고, 절대적 가치의 대상인 이데올로기의 배신이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소멸된다는 적자생존의 원초적인 생존양식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남부군에 소속된 각 개인들에 무한한 연민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면서,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 대한 연민을 대신하게 한다. 그들과 이데올로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지도부를 제외한 많은 대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할 때 우리가 어찌 연민을 아니 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연민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애정을 갖게 만든다.

부끄러운 역사이거나 자랑스러운 역사이거나간에, 우리 형제들의 피어린 삶의 자취라고 할 때, 설령 한을 머금고라도 모두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역사의 소외지대에 살았던 인간들이 극한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큰 감동을 준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새삼스럽게나마, 이데올로기와 역사와 개인의 삶은 항상 맞물려 있으면서도 그것은 서로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든다.

